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10.(수) 11:00 < 1.11.(목) 조간 >	배포	2024. 1. 10.(수)

올해부터 미래차 전환 본격 지원한다

- 올해 7월「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시행 앞두고, 부품업계 의견수렴
- 평택을 시작으로 대구, 울산, 광주에서 미래차법 설명회 순차 개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10일(수) 평택(평택대학교)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1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7월 본격 시행되는「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기업들에 설명하고,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에 대한 부품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❶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대표되는 미래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과 부품의 범위에 포함, ❷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역량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❸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금년도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총 3,924억 원을 투입하는 '2024년 미래차 연구개발(R&D) 지원 방향' 및 '부품기업 사업전환 성공사례'가 소개되었다. 부품기업 토론회에서는 KG모빌리티, 동하정밀, 엠프로텍, 영화테크, 융진기업 등이 투자지원 확대, 미래차 전환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개발·시험 등을 위한 장비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업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정으로 미래차 산업으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가 마련된 만큼,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지원하고, '24년 9.7조 원 규모의 미래차 정책금융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평택을 시작으로 대구(1. 12.), 울산(1. 16.), 광주(1. 18.)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하위법령 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책임자	팀 장	이은희 (044-203-4390)
		담당자	사무관	정종호 (044-203-43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권역별 설명회

◇ 동법 제정에 따라,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으로 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부품업계의 의견 청취

□ 개요

- ㅇ **대 상** : 완성차 및 부품기업, 유관기관 임직원 등 관계자
- ㅇ **일 정** : '24.1.10 ~ 1.18, 기간 동안 4개 지역에서 개최

* 경기·충청(평택, 1.10), 대구·경북(대구, 1.12), 부산·울산·경남(울산, 1.16), 광주·전라(광주, 1.18)

□ 권역별 설명회 일정

차 수	권 역	일 자	장 소
1차	경기·충청권	1.10(수)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3국제관 e-컨버전스홀
2차	대구·경북권	1.12(금)	대구광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 C-quard
3차	부산·울산·경남권	1.16(화)	울산광역시 울산시청 시민홀(의회건물 1층)
4차	광주·전라권	1.18(목)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09호, 210호

□ 설명회 프로그램 세부일정

시간 계획		주요 내용
14:00~14:15	('15)	▪ 개회
14:15~14:25	('10)	▪ Break Time
14:25~14:35	('10)	▪ 「미래차부품산업법」 내용 설명
14:35~14:45	('10)	▪ '24년 미래차 R&D 방향 소개
14:45~14:55	('10)	▪ 미래차 사업전환 사례 소개
14:55~15:30	('35)	▪ 부품기업 토론회